

마루가 있는 집

— 特히 尚州 養眞堂을 中心으로 —

申 榮 勳 (文化財委員會 專門委員)

1

韓屋이라고 하는 집이 과연 어떤 것이냐는 문제가 대두하면 제각기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씩 한다.

무엇을 한옥이라고 하느냐의 概念 정리는 그래서 매우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이 된다. 그러나 한옥이 무엇이냐의 문제는 언제인가는 거론되어야 하고 논의가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유형을 한옥이라 할 수 있고 한옥의 「定型」은 이런 형상이라고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집의 성격을 규명하는 일에서 基盤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심중한 문제이기도 하다.

나는 생각하였다. 우리만이 입는 의복을 韓服이라 하고 우리들이 즐겨먹는, 다른 민족이 먹지않는 음식을 韓食이라 부른다면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집을 한옥이라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固有한 것이 될 것이며 고유하다면 그것으로 특성지어 지는 유형을 한옥이라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한 것이다.

중국집. 中原(중원지방 黃河流域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중국집, 특히

살림집의 보편적인 구조에서는 구들을 찾을 수 없다. 온돌의 구조가 없다. 또 마루도 없다. 쪽마루가 있고 다락은 있어도 거처하는 대청과 같은 마루는 없다. 맨바닥에서 의자와 탁자를 놓고 사용하며 침상에서 자는 것이 보통이다. 중원지방의 보편적인 살림집에는 마루도 구들도 없다. 이 집은 우리집과 다르다. 우리의 살림집에는 마루도 구들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남쪽지방에는 마루 칸 집들이 있다. 그러나 구들의 설비는 없다. 만주지방에 구들에 흡사한 시설이 있는 집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집에는 마루가 없다. 중국엔 구들과 마루가 구비된 집이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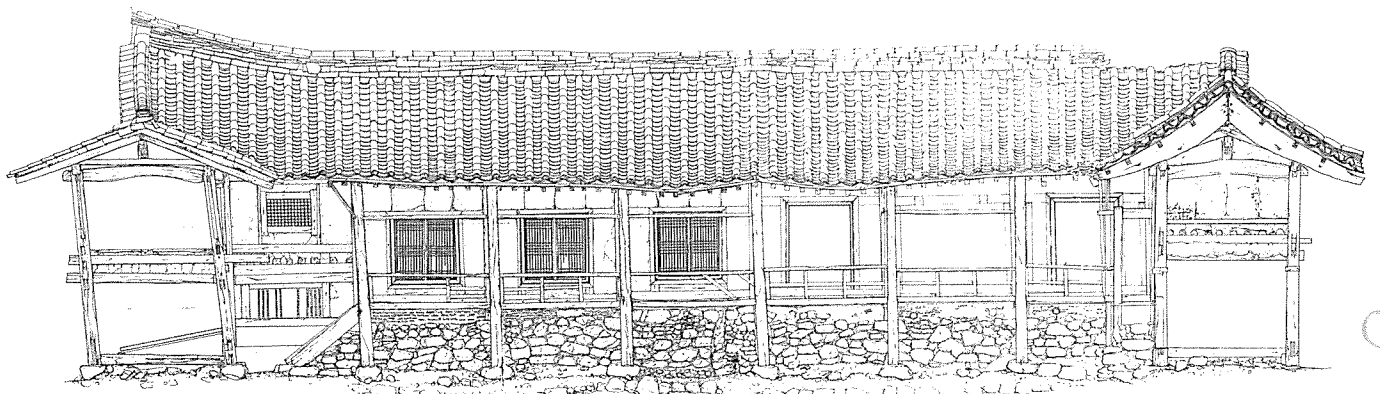
일본의 보편적인 살림집엔 마루가 깔렸다. 다다미방이 있다. 그러나 구들이 없다. 마루는 있으되 구들이 없는 것이다. 마루도 구들도 있는 우리의 집과는 다르다.

이렇게 보면 이웃나라의 집과 다른 점이 마루와 구들이 함께 있다는 것에 특색이 있음을 알게 된다. 구들과 마루가 있는 집을 우리는 한옥이라고 규정지어 부를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마루와 구들이 있는 집을 한옥의 「定型」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또 생각한다. 이제 집구경 다니기 시작한지 25년 가량이 되었다.

적어도 2,000여채의 집을 보았다고 할 때 그중에는 구들은 있으되 마루가 없는 집도 있고 마루도 없이 봉당만의 집도 있음을 보았다. 이들은 구들과 마루를 함께 지니지 못하였다. 이들은 한옥에서 제외되어야 하느냐는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들을 한옥이라는 범주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합당하냐의 문제점에 맞닥뜨린다.

나는 한 문헌의 기록을 본 적이 있었다. 이익(李瀾) 선생이 지으신 「성호사설(星湖僞說)」이라는 책을 읽었다. 「성호사설」(30권 30책 英祖 때의 實學者 李瀾이 지은 책. 天地門3卷·萬物門3卷·人事門11卷·經史門10卷·詩文門3卷의 다섯가지 유형에 따라 사전과 같은 항목을 나누어 그의 所論을 서술한 내용이다) 중에 제주도 사람들이 사는 집은 「架板爲廳」(가판위청, 널빤지로 마루를 깔아 청을 이루었다.) 한 것이라는 기록이 있다. 제주도의 집은 마루만으로 완성된 집이었다는 기록인 것이다. 당신이 살던 당시로 부터 얼마 전까지만도 제주도 집은 마루만이고 구들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르러 제주도에도 구들이 보급되면서 젊은 사람들의 기력이 쇠퇴해 가고 있다는 내용이 그의 글의 줄거리이다. 성호 이익 선생은 숙종 때 태



尚州 養眞堂 正面 實測圖(補修前)

어나서 영조임금 30년(1763)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의 글대로라면 제주도엔 18세기 초엽까지 아니면 17세기 말엽까지엔 구들이 없는 집들이 태반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架板爲廳」하였다는 마루만이 있는 집에 구들이 接合하였다. 18세기의 일이다. 구들의 시설이 한반도의 최남단에 까지 보급된 시기이기도 하다.

현재로서 구들은 아주 추운 북방에서 발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雄基(웅기, 함경북도 慶興郡 雄基邑 松坪洞)에서 조사된 조개무덤 밑의 옛 살림집 터전에서 구들을 설치하였던 흔적이 찾아졌다는 고고학계의 보고가 있다. 원시시대의 구조물이 보고된 예가 된다.

중국사람들은 이웃한 여러나라의 풍물에 관심이 있어서 역사를 기록하는 책에 보거나 들은 사실들을 단편적이거나 수록하였다. 이들 기록 중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도 있다. 그중엔 고구려에 관한 기록도 있다. 고구려의 백성들은 매서운 추위의 겨울을 지내기 위하여 움집에서 사는 것을 즐겨하였다고 하고 움집의 바닥에 구들을 설치하여 난방하여서 따뜻하게 겨울을 지낸다고 하였다. 구들은 추운지방에서 살을 예이는 매서운 추위를 견디는 수단으로 구조된 시설이었다. 이 시기에 남방에는 구들이 없었다. 남쪽지방이나 중부지방에서 조사된 옛움집 터전에서 아직 구들의 흔적이 발견된 바 없다고 고고학자들은 말한다. 「朝鮮賦(조선부, 명나라 사신 董越이 우리나라 풍물을 읊은 글. 1권. 1697년에 우리나라에서 간행함. 동월은 1488년에 사신으로 다녀감)」라는 책

에 미묘한 글귀가 있다고 돌아가시고 유섭(高裕燮,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사학자. 많은 저서와 논문을 남기고 젊어서 他界함) 선생이 인용하였다.

백제 때의 일이라고 한다. 백제사람들은 땅의 습기를 피하여 지표면에서 푹 떨어진 높이에 집을 짓고 살며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린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 기록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정자라고 부르는 다락집이 백제의 살림집으로 구조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지금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원두막의 유형이 그런 집의 古形(옛모습)이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우리도 익히 알 수 있듯이 마루를 깔아 바닥을 삼는 집의 유형이다.

원두막이 오래된 것은 둥근나무를 뿔목 엮듯이 나란히 해서 마루를 구성한다. 마루의 원초적인 형상이 이것이다. 이런 마루에 올라가기 위하여는 마당에서 걸쳐놓은 사다리나 층층다리를 타고 올라간다. 통나무를 다듬어 깎아 만든 사다리도 있고 알맞은 굵기의 나무로 엮어 만든 사다리도 있다.

중국사람들은 이런 집을 巢居라 하고 巢居氏라는 聖人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옛날 아주 옛날 땅에 사람이 적던 시절, 짐승의 수보다 사람의 수가 아주 적던 시절에 사람들은 큰 짐승이나 독충의 파충류를 피하여 집을 큰나무에 지었다. 땅에서 푹 떨어진 높이에 집을 짓고 사니 그런 피해가 줄었다. 이를 칭송하여 큰나무에 집짓는 법을 가르킨 분을 일러 소거씨라 불렀다는 내용이다. 중국의 남쪽지방 동남아의 바닷가 우리나라, 일본의 남쪽 바닷가의 집들 중에는 이런 원두막형의 집

들이 많았다. 지금도 동남아나 중국에서는 그런 집들이 조영되고 있다. 타잔의 집처럼 높직하게 짓는 것이다. 그 규모는 지표상의 집 못지않게 대규모인 것도 있다.

마루는 그래서 남쪽지방에서 발현하고 발달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백제의 살림집은 그런 계통이었고 제주도의 가판위청하였다는 마루의 집도 이런 유형의 집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들 마루가 북쪽지방으로 전파된다. 구들만이 있는 지역으로 파급된 것이다. 어느 때 마루가 압록강 유역에, 또 고구려 넓은 터전에 도달하였는지는 아직 이렇다할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집은 아니지만 倉庫의 건물로 구조된 것에는 마루가 설치된 예가 있었음에서 고구려 때 마루의 結構法이 이미 채택된 바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이 살림집에 까지도 파급되어 구들과 공존하게 되었느냐에 대하여는 아직 알 수 없다. 움집일 때 마루의 접합은 불가능하다. 귀틀집이나 토막집에서도 마루가 삽입될 여지는 희박하다. 그렇다면 마루가 구들에 채택된 시기는 제주도에 구들이 보급되는 만큼이나 근세에 이르러서야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편이 순리에 가까우리라 생각한다.

3

18세기에나 구들과 마루가 北端과 남쪽끝에 까지 보급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면 구들과 마루가 공존하는 한옥의 「定型」은 18세기에나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전국에 걸쳐 그것이 경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마루가 발생하고 복진하기 시작하



慶北 榮豊郡 豊基面の 원두막(1982년 촬영)



田圃의 원두막. 경북 청도군 운문리 운문사

고 구들이 남쪽을 향하고 점진하기 시작한 이래 수천년의 기간을 두고 조금씩 전진하여 드디어 18세기에 이질적인 두 요소가 발생지지에 각기 도달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전국규모로 한옥이 경영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불과 2~3세기 남짓할 뿐이다. 나머지 선사이래의 기간은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한 잠복기간이거나 준비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준비기간을 우리는 한옥의 원초시기, 18세기 이후를 한옥의 정형시기라고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최남·북단에 도달하기 이전에 중부지방에서는 두 요소가 교차하면서 이미 절충을 시작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중부지방의 이 시기를 나는 고려 말에서 임진왜란 발발까지의 기간으로 보고 있다. 이는 여러가지 증거들이 토대가 된다.

구들과 마루의 시설이 함께하는 구조는 이질적 요소의 접합으로 인하여 단순하지만은 않다. 구들은 움집에서 시작하여 지표에 노출된 것이므로 지표면과 가깝게 자리잡는 일을 위주로 한다. 반대로 마루는 지표에서 툭 떨어진 높이에 결구되던 것이므로 그 높이를 아무리 끌어내려도 구들보다 낮게 위치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높아 지려는 경향이 가득하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는 구들의 설비를 低床式이라 하고 마루의 구조를 高床式이라 부르고 있다.

구들에 마루가 접합한 것. 마루만이 있던 지역에 구들이 들어와 삽입된 구조들이 있다. 이들 중에 뚜렷한 유구가 있어 주목하고 있다. 마루만의 집에 구들이 삽입된 예가 경상북도 상주군 낙동면 운평리에 있다. 義眞堂이라 부르는 집이다.

4

義眞堂을 처음 지은 사람은 젊은 신랑 조정(趙靖, 號는 黔澗, 1555~1636)이었다. 조정은 안동의 유명한 학자이며 정치가이던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1538~1593, 퇴계의 제자, 黃允吉과 함께 일본에 다녀와 침략이 없을 것으로 복명한 분)의 만형 김극일(金克一)의 딸에게 장가든다. 학봉선

생에게 나아가 修學하는 사이에 능력이 인정되어 귀여움을 받는다. 그 귀여운 사위를 위하여 장인은 집 한채를 지어주기로 작정하였다. 낙동강 건너 지금의 상주땅에 좋은 터전을 잡아 집을 지었다. 지금의 양진당이다.

조정은 38세 때 임진왜란을 당한다. 서울이 함락되고 임금이 몽진하자 정경세(鄭經世 1563~1633, 性理學者, 임진왜란 때의 義兵將, 벼슬이 吏曹判書에 이름) 등과 더불어 함창(咸昌) 지금의 상주군 함창읍) 黃嶺寺에서 倡義하여 대장을 이봉(李逢)으로 삼고 활약하였다. 丁酉再亂(정유재란) 때에는 基遠과 榮遠 두 아들을 창령(昌寧) 화왕산(火旺山)에 보내어 의병에 가담하게 하였다.

그후 군기시 주부, 호조좌랑, 예조좌랑, 봉상시정(奉常寺正)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그가 죽자 나라에서는 이조참판의 벼슬을 증직하였다.

조정이 지은 집은 뒷산을 背山으로 삼고 퍼져나간 들녘에 위치한다. 門前玉畚이 肥美한 터전이 문앞에 널찍하다. 저어리로 水量이 많은 개울이 천천히 흐르고 있다. 이른바 名基(명기, 좋은 터전)라고 하는 여건을 다 갖추었다.

조정의 집은 원래 트인 口자형의 평면이었다. 지금은 앞쪽의 대문간채가 없어지는 바람에 冂자형이 되었다. 이 冂자형의 평면에 따라 지어진 집이 모두 다락집과 같은 형상이다. 한쪽에 설치되어 있는 층층다리(層橋機)를 올라가게 되었는데 앞쪽의 퇴마루를 통하여 방앞을 지나 대청에 도달하게 된다.

이집의 평면은 곁집(太白山脈住家帶에서 北方的 성격을 지닌 평면유형. 폐쇄적이며 내부 공간에서 활동이 가능한 구조로 홀집에 대칭된다) 형에 속한다.

사다리를 올라서면 퇴마루이다. 퇴마루에 연하여 방이 3칸 두칸박이(곁출)로 6칸 자리잡았다. 퇴마루는 계속된다. 대청앞을 지난다. 대청은 방에 이어 역시 6칸의 넓이다. 간막이 없이 탁 트여서 아주 넓어 보인다. 퇴마루는 대청앞에서 끝난다. 그러나 대청에 이어서는 방 2칸이 더 있다. 전후로 2칸이 자리잡았다. 앞에서 보면 1칸이 된다. 이 방에서 冂자형의 오

른쪽 날개가 시작되어 4칸이 연속된다. 마루·방, 또 2칸의 마루가 계속되는 구성이다. 이 부분의 아랫층은 공간·헛간들로 쓰인다.

사다리를 오르는 곳의 4칸은 다락이다. 부엌 위의 다락에 해당되며 방에서 출입하게 된다. 이 다락의 끝에서 冂자형의 왼쪽 날개가 시작되는데 수리 전에는 다락 1칸만이 남아 있었다. 원래는 오른쪽과 같은 규모로 건축되었었다.

이 평면구조는 주목할만한 것이다. 다락집(高床式) 형태이므로 南方性이 농후한 것이겠는데 평면은 북방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낙동강이 지닌 지역적인 특색에 생긴 절충형이라는 점에서 이해되는 것이지만 이런 집이 이 지역에 있어서 학술적인 논의가 일어나게 된다.

평면보다 더 흥미있고 학술적인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 立面狀이다. 땃돌이나 죽담 위에 너무 축하게 지어지는 집과는 달리 몸체가 전부 다락집으로 공중에 떠있기 때문이다. 이런 집을 찾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거의 완성된 고상식주가 이제 아주 보기 드물어졌기 때문이다. 회소가치로도 이 집은 학술적 가치가 있다.

이 집이 지닌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정밀실측을 실시하였었다. 「尚州義眞堂實測調査報告書」(1981)로 그 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이 집은 고상식주가에, 즉 마루만이 있던 집에 구들이 삽입된 예. 그 접합의 과정을 남긴 집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한옥의 한 유형인 것이다.

정직위에
금자탑이
부정위엔
모래탑이